건기식 연평균 구매액 2년 연속 감소

30대 큰 폭 감소, 50대 이상 2년 연속 내림세

Introduction

지난해 가계별 건강기능식품 연평균 구매액이 전년 대비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농촌경제연구원이 매년 발표하는 가공식품 소비자 태도 조사 보고서를 통해 파악된 것이다. 감소 폭은 크지 않았지만 2023년에 이어 2024년에도 구매액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 건강기능식품 시장이 다소 주춤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게 했다. 특히 30대가 가장인 가구의 구매액이 전년보다 크게 감소했다. 또 50대와 60대의 구매액은 2년 연속으로 줄고 있어 50대 이상이 소비하는 건강기능식품의 양과 종류가 변하고 있음을 알게 했다. By NutraDex

건강기능식품 구매액 2년 연속 감소

지난해 가계별 건강기능식품의 연평균 구매액이 전년보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촌경제연구원이 발표한 가공식품 소비자 태도 조사 보고서에서 2024년 가계별 연평균 건강기능식품 구매액은 303,519원을 기록해 304,051원을 기록한 2023년에 비해 0.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1. 참조) 감소 폭은 크지 않았지만 2년 연속으로 구매액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나 건강기능식품 시장의 성장세가 꺾이고 있다는 것을 짐작하게 한다.

지난 통계를 보면 가구당 건강기능식품 연평균 구매액은 2020년부터 크게 상승했다. 2020년은 전년 대비 16.8가 증가했고 2021년 8, 20222년에도 16.5 증가율을 나타냈다. 그러나 2023년 -4.5 성장률로 하락 반전했고 지난해 역시 하락 추세를 이어갔다. 2023년을 기점으로 건강기능식품 생산실적 및 총매출이 내림세를 보이는 것과 유사한 흐름이다.

표1. 1년간 가구 당 건강기능식품 연평균 구매액 (단위: 원, %)

연도	구매액(원)	전년대비 증감율
2019년	216,760	-5.1
2020년	253,136	16.8
2021년	273,456	8.0
2022년	318,482	16.5
2023년	304,051	-4.5
2024년	303,519	-0.2

출처 : 농촌경제연구원 / 가공식품 소비자 태도 조사

30대 구매액이 특히 줄어

특히 30대가 가장인 가구의 구매액이 크게 줄었다. 30대 가구의 연평균 건강기능식품 구매액은 313,157원을 기록해 335,742원을 기록했던 전년보다 6.7 감소했다. (표2. 참조) 2021년부터 매년 20에 가까운 증가율을 기록한 것을 감하면 다소 심한 반전이다. 물론 수년간 높은 증가 폭을 기록한 데 따른 기저효과로 해석할 수도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지난해 30대 가구의 경제적 상황이 녹록지 않았음을 말해준다는 의견도 나온다.

반면 20대 가구의 구입액은 9.9 증가해 여전히 높은 증가율을 나타냈다. 구입액 절댓

값은 아직 타 연령대에 비해 적은 게 사실이지만 매년 높은 증가율을 보인 덕분에 60대 이상 가구의 구입액과 거의 유사한 수준까지 올라왔다. 젊은 층의 건강기능식품 활용이 그만큼 빈번해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40대 가구의 소비액은 8.2 증가했다. 40대 가구는 전 연령대를 통틀어 건강기능식품 연평균 구매액이 가장 높은 수준이다. 올해 역시 연평균 338,656원을 건강기능식품 소비에 사용해 1위를 차지했다. 40대 가구의 경우, 본인 섭취는 물론이고 수험생 자녀나 노년층 부모님을 위한 구매 경향도 있어 건강기능식품 소비가 상대적으로 활발하다.

표2. 가구주 연령대별 가구 당 연평균 건강기능식품 구매액 (단위: 원, %)

구분	20대	증감	30대	증감	40대	증감	50대	증감	60대~	증감
2019년	144,310	14.1	201,449	2.2	241,319	0.4	249,858	-8.9	235,269	6.3
2020년	222,903	54.5	198,505	-1.5	300,629	24.6	313,763	25.6	230,132	-2.2
2021년	153,522	-31.1	240,648	21.2	295,209	-1.8	312,193	-0.5	273,151	18.7
2022년	233,163	51.9	280,771	16.7	325,469	10.3	328,319	5.2	334,873	22.6
2023년	252,501	8.3	335,742	19.6	312,890	-3.9	309,443	-5.7	284,551	-15.0
2024년	277,609	9.9	313,157	-6.7	338,656	8.2	302,752	-2.2	283,183	-0.5

출처 : 농촌경제연구원 / 가공식품 소비자 태도 조사

50대 이상은 2년 연속 감소

50대 이상 연령층의 건강기능식품 소비는 2년 연속으로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다. 2023년 전년 대비 5.7 감소했던 50대 가구 건강기능식품 소비액은 지난해에도 전년 대비 2.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50대 가구의 건강기능식품 구매액 감소는 지금까지 진행된 건강기능식품 마케팅 전략에 수정이 필요하다는 신호로 받아들여진다. 상당수 업체가 건강기능식품 소비의 주 연령대를 50대로 설정하고 마케팅 전략을 수립했던 게 사실. 그러나 지난 수년간 경향을 보면 50대의 건강기능식품 구매가 30~40대보다 적어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50대 연령층의 비중을 무시할 수는 없겠지만 중요도를 낮추는 것은 필요해 보인다.

60대 역시 2년 연속으로 소비가 줄었다. 2023년 전년 대비 15나 감소해 역대급 감소율을 보였고, 지난해도 0.5 감소해 내림세를 이어갔다. 2021~2022년 사이에 너무나

큰 폭으로 증가했던 반작용으로 보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60대 이상 고령층의 건강기능식품 소비량, 소비하는 상품 종류, 구매처 등에 변화가 있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홍삼 등 비교적 고가 제품에 대한 선호도가 줄어들고 밀크씨슬, 쏘팔메토, 루테인, MSM 등 상대적으로 가격대가 낮은 상품 구매가 증가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 또 상품 가격에 상대적으로 높은 방문판매나 다단계 판매 유통을 활용도가 적어진 것도 이러한 결과로 나타났다는 설명이다.

유산균 섭취 가장 많아

가장 많이 섭취하는 건강기능식품은 유산균인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많이 구매하는 품목으로 유산균을 꼽은 응답자는 34.4 달했다. 2위는 비타민으로 26.8를 기록했고, 인삼류는 19.5로 3위를 차지했다. (표3. 참조)

유산균은 전 연령대에서 고른 지지를 받았으나 그중에서도 30~40대의 구매가 40를 초과해 가장 높았다. 반면 비타민 및 무기질은 20대의 선호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인삼류는 60대 이상에서 선호도가 높았다. 또 EPA/DHA는 50대 이상에서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단백질은 20대가 타 연령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이 구매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끝.**

표3. 가장 많이 구매하는 건강기능식품

순위	품목	비율(%)
1	유산균류	34.4
2	비타민 및 무기질	26.8
3	인삼류	19.5
4	EPA/DHA	11.3
5	단백질	2.5
6	콜라겐	1.4
7	MSM	0.8
8	루테인류	0.6
9	프로폴리스	0.6
10	밀크씨슬	0.5

출처 : 농촌경제연구원 / 가공식품 소비자 태도 조사